



영화觀

새하얀 침묵

데이빗 로워리 감독의 2017년 작품 '고스트 스토리'는 제목처럼 '유령의 이야기'다. 이 영화는 세상을 떠난 한 남자가 마치 지박령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살던 공간을 떠돌며,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남긴 마지막 문장을 찾기 위해 긴 시간을 머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에잇하다'라는 단어가 품은 마음의 뜨겁고 고단함을 영상으로 옮긴 듯 아름답고 슬픈 영화다.

'고스트 스토리'는 대사가 거의 없다. 대화가 멈추고 침묵에서 작은 소리가 깨어나고 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음악이 나타나고 음악이 사라져 침묵이 되는 공간에 다시 흐느낌이 생기는, 섬세하고 잔잔한 흐름의 영화다. 삶을 떠난 이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이 작품은 신선하고 기묘한 비주얼의 판타지 영화인 동시에 감상 내내 사색과 명상을 선사하는 독특한 질감의 아트 필름이기도 하다.

주연을 맡은 루니 마라와 케이지 에플렉은 각각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과 아카데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걸출한 배우들이지만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개의 검은 눈을 가진 새하얀 침대 시트다. 거의 모든 이들의 죽음을 덮은 촉감인 동시에 죽음 이후의 움직임이 가능케 하는 이 익숙한 재질은 만질 수 없는 삶의 공간들을 유영하는 유령의 코스튬이자 이 작품의 시그니처 이미지이기도 하다.

'고스트 스토리' 속 새하얀 침대 시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멈추고 기억하고 분노하고 침잠 하다가 창문 건너 편에 서서 자신에게 인사를 전하는 또 다른 침대 시트를 만날 때, 우리는 새하얀 침대 시트 위로 내린 죽음이라는 선언이 결코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단정한 문장 안에 폭발적인 감정을 숨겨 놓은 백수린 작가의 단편 '고요한 시간'의 마지막 두 페이지는 굉장히 시각적이어서 마치 그 마지막 문단의 앞에 서서 주인공과 함께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곤 한다. 그 마지막 문단은 어느 작은 마을, 차가운 겨울의 새벽 위로 내리는 흰 눈의 모습과 소리를 옮겨 담고 있는데 이 소설의 안에 들끓던 머물지 않은 상처들 위를 덮어



영화 '고스트 스토리'.

버린 느닷없는 눈의 방문은 아름다운 동시에 섬뜩하기도 하다. '고요한 시간'은 재개발 지역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열여섯 살의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계층적 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진동, 거기에 비로워진 파열음의 날카로움과 주저함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어떤 가슴 아픈 사진의 전말을 알게 된 주인공이 머뭇거리며 용기를 내고 또 겁은 두려움의 순간에 그 감정이 어긋나는 찰나를 일순간 사라지게 만드는 백야의 무심한 아름다운 기이하게 아름답고 슬프다.

올 겨울은 눈이 유독 인상적으로 내린다. 눈이 오는 날이면 SNS에는 전국의 눈 사진과 동영상들이 새하얗게 피드를 수놓는다.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눈사람의 형상들 그리고 그 눈사람을 때리고 없애버리는 누군가의 손쉬운 폭력과 그것을 경계하는 이들의 공포로 가득한 걱정들, 눈 덮인 도시 위에 나타나지도 숨지도 못한 길 등들의 안타까운 사연들까지 하얀 재질은 만질 수 없는 삶의 부분들을 유영하는 유령의 코스튬이자 이 작품의 시그니처 이미지이기도 하다.

'고스트 스토리' 속 새하얀 침대 시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멈추고 기억하고 분노하고 침잠 하다가 창문 건너 편에 서서 자신에게 인사를 전하는 또 다른 침대 시트를 만날 때, 우리는 새하얀 침대 시트 위로 내린 죽음이라는 선언이 결코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단정한 문장 안에 폭발적인 감정을 숨겨 놓은 백수린 작가의 단편 '고요한 시간'의 마지막 두 페이지는 굉장히 시각적이어서 마치 그 마지막 문단의 앞에 서서 주인공과 함께 풍경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곤 한다. 그 마지막 문단은 어느 작은 마을, 차가운 겨울의 새벽 위로 내리는 흰 눈의 모습과 소리를 옮겨 담고 있는데 이 소설의 안에 들끓던 머물지 않은 상처들 위를 덮어

<김영한·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체지방 과잉으로 신체 불균형... 각종 질병 노출



우리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상)

자연서 사는 야생동물 다이어트 불필요 반려동물은 환경특성상 과체중 되기 쉬워 식사 풍족·안전한 생활환경... 체중 늘어

"새해에는 반려동물도 다이어트, 올바르게 건강한 체중관리 함께해요."

새해의 첫 번째 달, 1월이 되면 한 해의 소망을 담아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 외국어 공부, 자격증 취득부터 진학, 취업, 독립, 결혼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인 다이어트다.

여기서 문득 생기는 궁금증이 있다.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같이 먹고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은 어떨까? 과연 반려동물들에게도 다이어트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의 체중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알아보도록 하자.

▶반려동물도 다이어트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은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다. 생태계의 순환이라는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야생의 동물들이 영양의 과잉 상태가 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은 환경 특성상 과체중 상태가 되기 매우 쉽다. 먼 옛날 반려동물의 선조들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 결과 영양가 높은 사료와 음식이 시간에 맞춰 제공되고, 맛있는 간식들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됐다. 아울러 현대에서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게 됐다. 사람과 함께하면서 풍족한 식사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가지게 됐으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과체중 상태는 당장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 여러가지 질병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높다. 체지방의 과잉은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려 당뇨, 소화기능 이상과 같은 대사성 질환, 무거워진 몸무게로 인한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피부 이상에 따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과체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하고, 우리와 오래오래 건강히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들도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체중 관리 계획을 세우는 방법, 동물별 체중 조절 방법 등은 다음 회차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윤기 제주키움동물병원장

Advertisement for domestic citrus products. Title: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Includes details about 'Winter Prince' and 'Mini'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ju Citrus Growers Association.

Advertisement for Jeju Citrus Growers Association (제주지회 우수 묘목업체). Lists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several nurseries.